

나주에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개소

수도권과 동부권 이어 전국 세번째 신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 지역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정보산업진흥원 시민 체험존 운영

나주시가 서남권(전남·광주·전북) 메타버스 지역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서남권 메타버스 관련 종합지원 인프라를 제공할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메타버스 산업 육성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허브센터 개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수도권(판교)과 동북권(구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다.

서남권 허브센터는 나주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된다.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뜻하는 '유

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같은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일상생활 공간이 확장되고 새로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가 창출되는 혁신 기술이다.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지역산업 연계 메타버스 콘텐츠 실증 지원, 콘텐츠 개발 자금 지원, 메타버스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메타버스 산업 혁신 성장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202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남도 및 순천시와 함께 '메타버스 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산업 연계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제작을 지원했다.

이번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으로 메타버스 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개발·제작된 콘텐츠가 실증 및 사업화까지 지원이 확대되며 지역 메타버스 산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남권역 컨소시엄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 동향 공유 등으로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고 산업 발전에 시



지난 23일 나주시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문을 열었다. 나주시 제공

너지 효과를 불러올 계획이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가 5G 콘텐츠 실증 지원, 메타버스 전문인력 및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메타버스 산업의 혁신 성장 거점이 될 것이다"며 "VR·AR(가상·증강현실), 디지털트윈 등 메타버스 핵심 기술을 통한 새

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 메타버스 체험존을 운영한다. 나주-김용의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영광군, 내년 1월 1일부터

영광군은 내년 1월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통해 농어촌버스를 횡수 제한 없이 탑승할 수 있다.

미신청자 및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 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영하는 노선에만 한정돼 있어 합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해 열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광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 본격 운영 함평군,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할

함평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거점시설을 완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중앙길 가변상가에는 나비스 카페, 나비스 스토어, 나비잡자리, 마을공작소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해당 시설들은 함평전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위탁 관리하며 지역사회 환원사업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면 단위 지역에도 도시재생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나산할머니다방'은 나산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지역 로컬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달걀로 만든 토스트와 커피세트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해보면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꽃무릇 카페'는 해보면 꽃무릇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인 사인머스켓을 활용한 음료를 시그니처 메뉴로 제공한다.

학교면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을 리모델링한 '건강드림카페'는 학교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인 무화과를 활용한 주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김순자 함평읍 조합원은 "우리 삶터가 일터가 되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청년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활력이 넘치고, 매일이 즐겁다"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공동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을 유지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함평농공단지협의회가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1050만원을 기탁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농공단지협의회,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

농공단지 내 7개 기업 참여

함평군 함평농공단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모아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성금 1050만원을 기탁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성금은 함평농공단지 내 7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됐다.

7개 기업은 △천지환경(500만원) △강동RNA(100만원) △대보레미콘(100만원) △사조동아원(100만원) △에코닉스레미콘(100만원) △밝은환경(100만원) △쌍우아스콘(50만원) 등이

다. 최성규 함평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은 "이번 기부는 지역 내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돕고자 마련한 뜻깊은 나눔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농공단지협의회와 참여 기업들이 보여준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함평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이 지역사회에 더 큰 희망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군,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담양군, 민원 처리 우수부서·직원 선정

담양군은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 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직원 사기진작과 민원 행정서비스 개선 문화를 장려하고자 민원 처리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먼저 '국민신문고' 분야에서는 지난 6개월간의 민원에 대해 처리 기한 준수, 답변 충실도, 민원 처리 건수, 민원인 만족도, 신문고 민원 정책 질의응답 게시 개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그 결과 공

간재생과(최우수), 축산원예과(우수)가 선정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2일 이상인 단순·복합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기한에서 단축한 만큼 점수를 부여했다. 최우수상은 도시과 김진영, 우수상은 환경과 최경아, 장려상은 물순환사업소 방승현 직원이 선정됐으며 연말에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부서와 직원을 발굴해 격려하고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다. 화순군은 30일 농촌진흥청 주관잔류농약분석 숙련도 시험 결과에서 '만족'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국내외 잔류농약 분석 숙련도 입증

화순군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잔류농약분석 숙련도 시험과 영국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주관한 국제비교숙련도평가(FAPAS)에서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숙련도 시험 결과는 '만족', '의심', '불만족'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화순군은 '만족' 평가를 받았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식품 및 농업 관련 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프로그램으로 해당 평가 역시 '만족' 평가를 받았다.

화순군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운영, 잔류농약 463항목의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화순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분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방문해 농산물 시료(0.5~1kg)와 분석의뢰서를 제출하면 된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숙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는 등 화순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분석 능력이 국내외에서 입증되고 있다"며 "이는 화순군의 먹거리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